

섬김 경영 (주)하림 대표이사 이문용 사장

고객홍보팀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의
도전정신을 토대로 국내 닭고기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하림.
'섬김'을 가치체계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인력양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는 기업.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하림.
그곳에 대표이사인 이문용 사장이
있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익산이라는 농업도시에 와서
근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
그런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하림을
대한민국 대표 식품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하림 대표이사 이문용
사장을 만나 하림의 30년사를
들어 보았다.



농가와 대리점은 하림의 근간이며

성공의 동반자이자 미래 동력이기 때문에

농가와 상생의 공동체, 섬김의 경영을 추구해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 재임 기간이 12년으로 식품업계의 최장수 경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용 사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문용 사장(이하 이) 하림과 인연이 2001년이니 올해로 17년째인가 봅니다.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1976년 빙그레에 입사해 불혹의 나이에 임원을 역임하고, 하림 부사장을 시작으로 어느덧 최장수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하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구성원의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농경문화의 기업풍토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량적인 기마민족의 DNA와 접목시키는 일이었죠.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갖고 그때마다 왜 일을 하는지,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림이어야 하는지 묻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갖도록 구성원의 체질을 다졌습니다. 또한, 농가와 상생의 공동체, 섬김의 경영을 추구해왔습니다. 농가와 대리점은 하림의 근간이며 성공의 동반자이자 미래 동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장 우선시 했고,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섬김의 경영이 결국 신뢰의 탑을 쌓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림의 구성원과 농가, 그리고 하림을 믿고 찾는 소비자가 저를 이곳까지 이끌고 온 것으로 생각 됩니다.

축 (주)하림은 김홍국 회장님께서 1978년 양계농장인 황등농장 설립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표 식품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하림의 경영철학과 성장과정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김홍국 회장님의 경영철학은 '삼장통합'과 '끝없는 도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은 없다"라는 니콜레옹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하림식품을

시작으로 하림이 지난 5월 30대 대기업 집단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토는 삼장(三場) 통합인데 시장, 농장, 공장의 삼장이 유기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장통합 경영시스템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시장상황에 상관없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장(기업)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장통합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이며 이를 토대로 하림은 닭, 오리, 돼지, 소 등 농업의 대표적 축종기업과 이를 뒷받침할 사료와 곡물 운반, 농수산 흡소핑, 물류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기업이 바로 하림을 비롯해 팜스코, 주원 산오리, 선진포크, 하이포크, 제일사료, NS흡소핑, 팬오션이며, 하림식품과 양재동복합물류단지 개발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6월 중순 통합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끝없는 도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 2016년에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 2014년 7월에 우리나라 축산물 최초로 하림의 삼계탕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서 하림 닭고기의 품질과 위생,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계속된 도전을 통해 2016년 6월에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인



중국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EU 수출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심사를 대비해 TFT를 가동 중이며, 올해 FVO(식품수의사무국)의 현지 심사에서 수출 작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림 삼계탕의 수출 확대와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조류인플레인지(AI)영향으로 3,300만수의 가금류가 매몰 처분되는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림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습니까?

이 이번 AI로 인해 금액적으로 산출한다면 2,000억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계육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물론 닭고기 기업, 소비자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하림은 우수한 방역시스템과 작년 말부터 AI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각각의 조직들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문제를 사전예방 관리했습니다. 사업장의 방역활동을 강화하며 종계농장, 부화장의 분산운영과 물류이동을 단순화하여 국내 AI 발생 대비 하림의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축 (주)하림은 2003년 닭고기 등급판정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닭고기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동물복지 제품 등 품질등급을 인정받은 닭고기의 시장상황과 등급판정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등급판정 제품은 급식채널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으나, 최저가격 입찰제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가격 이하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또한 친환경, 동물복지 제품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먹거리를 제공하므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지만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격 부담 해결과 품질등급 및 인증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해당 제품들의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홍보 되어야 시장에서 빠른 확대가 가능합니다.

하림의 발전 3단계는 1단계(모방), 2단계(발전), 3단계(창의·창조)이다. 그중 중간단계인 발전의 단계를 그가 담당하여 오늘날의 하림을 있게 하였고 이제 하림은 창의·창조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하림이 30년(2016년 창립 30주년)을 넘어 50년,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모든 협력업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동반성장을 이어갈 것이며, 세계 일류 품질과 생산성을 이룩해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

